

계열별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토론과 논술이 전면화되어야 하는 인문과학 교육

김 의 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대학사회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 시도와 맞물리기도 하고, WTO 체제의 국제 경쟁 질서 재편과도 관련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 대학의 변화 요구는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적 요구에 의해 떠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만 두고라도, 교수 집단의 본질적 보수성, 기득권 수호를 위한 개인적 집단적 집착, 대학의 내부 개혁을 과감히 시도하는 실천력의 부재 등으로 그 동안 계속 미뤄 온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시작되는 단

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변화에 머물거나 시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야말로 오랜 동안 변화가 요구되어 온 부분이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입시는 암기 위주로 지식의 양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등학교까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다. 그러한 방식의 교육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식과 용어의 암

기로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 주제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의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등의 배양이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입시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교 과정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초·중등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학습 습관을 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시켜 주는가? 대학 입시 과목의 변경을 통해 중·고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근 결정적인 시험과목으로 자리잡은 것이 '논술'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학에서 일반화된 모범적인 교육 방법을 중등학교로 전파하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이 중등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학교나 교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대학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등학교에만 입시제도를 통해 강조하는 셈이다. 이처럼 모순된 일은 오래 방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대학에서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은 교수-학습 방법

인문계열 교수들이 토론식 교수-학습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에 대해 19세기 이래로 많은 과학철학적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점점 확인되는 것은 차이보다는 공통성('진리의

상대성')이고, 차이와 독립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호침투와 연계('개방성')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원리이다. 수학이든 공학이든, 문학이든 사회학이든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학습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수업의 진행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문과학의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방법이 토론이다. 단순한 내용이든 복잡한 내용이든, 평이한 내용이든 난해한 내용이든, 학습자가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의식 수준과 지식 수준을 드러내게 하고, 학습자가 현재의 수준에서부터 조금씩 이해의 정도와 지식의 양을 쌓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경우, 즉 교수가 자신의 최신 연구 업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질의와 응답이 있는 쌍방향적인 방식을 통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물론 토론식 교수-학습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첫째, 교수-학습 단위가 적정수 이내이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능력과 여건 등도 갖춰져야 한다). 셋째, 적당한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모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부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토론

이라고 하더라도, 토론 방식이 일방적인 강의의 경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토론식 교수-학습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교수의 강의 후에 질의와 응답을 하는 방식, 교수의 강의 후에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는 방식, 정해진 교재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한 후 토론하는 방식,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한 후 토론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그리고 토론은 교수의 사회 아래 전체적으로 하는 방식과, 10명 이내를 한 그룹으로 하는 그룹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토론 못지 않게 중요한 방식이 글쓰기이다. 글쓰기도 토론 내용의 정리, 주제에 대한 리포트 작성, 발제문의 작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창작문 작성 등 다양하다. 말로 하는 토론에서는 논리성을 결하거나, 허점 투성이인 경우에도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교정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글쓰기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도 일정 정도 교정이 가능하며, 교수의 교정과 평가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글쓰기를 적당히 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인문계열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이 될 것이다. 토론과 글쓰기의 방식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주체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정신, 자율적 학습(기억의 장기화), 창의력 등의 확보이며, 이는 학습 기대효과 중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다. 여기에다가 새롭고 다양한 교수 공학을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자료, 기기, 프로그램 등 끊임없이 고안되는 교수 공학을 교과 내용에 맞게 그리고 학습집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원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특집의 다른 필자들이 제공할 것이다.

##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글쓰기를 적절히 배합·활용해야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수들의 의식 전환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획기적인 태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첫째, 형식적인 강의 계획서 작성과 시행을 탈피해야 한다. 대학에서 비치용으로 요구하는 강의 계획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과목의 특성과 수강생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할 수 있다. 형식적인 계획서의 작성보다는 새롭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학기당 지식 전수의 양(교과 진도)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양의 지식을 당해 학기에 획득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셋째, 교수들은 자신이 새 시대의 교수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의 대학시절에 경험한 교수-학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넷째, 학습자의 게으름만 탓해서는 안 된다. 토론식 교수-학습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학습자의 의지, 능력, 여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실로 토론식 교수-학습 방법을 기피하는 것은 교수들의 책임회피이다. 바로 그 전제조건들을 채워나가는 일부터 자신들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학습자의 자발성을 진작시켜야 하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권위의식을 버려야 한다. 교수가 자신의 한계와 고민을 감추려 한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교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고 고민하며 헤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일 수 있다. 완벽성의 강박은 가면과 허세를 뒤집어쓰게 만들고,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돕기보다는 강요와 부담만을 주게 된다. 결국 상호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앞서 넷째 항목과 직결되는 것으로 수강생 수를 적정 한도 이내로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정원 비율의 문제이고, 다음으로 합리적인 교과 및 수강 운영의 문제이다. 교육부와 대학 본부의 일이지만 교수들은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이수 학점수를 현격히 축소 조정해야 한다. 대학개혁의 과정에서 복수 전공제 등이 권장되면서 이수 학점이 축소되고 있으나, 총점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들이 한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학습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의 시행이 가능하다. 여덟째, 강의 보조자를 확보해야 한다. 토론식 강의-학습과 글쓰기에 대한 지도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조교가 꼭 필요하다. 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조교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가져야 한다. 완성된 이론에 따라 고정된 교수-학습의 틀을 확보할 수는 없다. 교육 자체가 그렇듯이 교수-학습의 방법 또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 역동성은 무한한 교육자적 실험정신으로부터 나온다.

대체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필자가 아는 원로교수는 15년 연하인 필자보다도 실험정신이 강하고, 학습자 위주의 교수방법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방법론도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미래지향적 내용과 결합됨으로써만 그 본래적 의의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

김의수/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등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보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 민교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호남사회연구회 회장으로 있다. 역서로 『철학적 인간학』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지식인의 역사적 책임",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철학적 원리들", "딜타이의 해석학적 역사이해" 외 다수를 발표했다.